

通信使行 筆談 · 唱和에서의 引詩 · 論詩연구*

김수경**

|| 차례 ||

- I. 緒論 - 外交 談話의 주요 매체로서의 『詩經』
- II. 引詩 - 『詩經』 言語 및 體式에 대한 援用
 - 1. 『詩經』 篇名 이미지의 引用
 - 2. 『詩經』 語彙 이미지의 援用
 - 3. 『詩經』 體式의 活用
- III. 論詩 - 先秦 『詩經』 고찰을 통한 唱和詩의 創作方向 모색
 - 1. 先秦 賦詩 · 引詩 고찰을 통한 唱和詩의 機械的 多作現象 반성
 - 2. 『詩經』의 기능 고찰을 통한 唱和詩의 역할 모색
- IV. 結論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통신사행 필담·창화에서의 『詩經』의 引詩·論詩 내용을 분석하고 조선-일본 간의 외교활동 배경에서 引詩·論詩가 지니는 의의맥락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사행의 필담·창화에는 先秦時期 燕享에 사용되던 『詩經』 樂章 편명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통신사행의 우호적 외교 성격을 부각시켰고, ‘木瓜’나 ‘瓊琚’ 등의

* 본고에서 사용하는 引詩와 論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詩經』을 인용하거나 논의한 것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며, 先秦時期의 특수한 문화배경 속에 나타나는 賦詩·引詩에서의 引詩 개념과 다르다. 본문에서 賦詩·引詩에서의 引詩를 가리킬 경우는 ‘先秦時期의 引詩’ 혹은 ‘春秋戰國時期의 引詩’ 등으로 서술하여 이를 구분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2-A00081).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責任研究員.

특정 언어 이미지를 인용하여 詩文·禮物的 贈答의 정감을 표현해냄으로써, 『詩經』 상징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때로는 『詩經』의 四言體를 사용하여 『詩經』의 體와 언어 이미지를 결합한 唱和 활동을 통해 引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通新사행 諷答· 唱和에서는, 引詩 뿐 아니라, 先秦時期 『詩經』의 選取過程 및 先秦 外交活動에서의 『詩經』 운용양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通新사행 諷答· 唱和에서의 『詩經』 援用이, 先秦時期的 賦詩· 引詩를 이상적 모델로 삼고 있는 데서 연유하며, 바로 그 이유에서 『詩經』의 選取過程과 外交活動에서의 기능을 고찰하고, 그 의의를 당시의 唱和活動에 되살리고자 하는 答論이 시도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제어 : 조선 통신사, 『詩經』, 賦詩, 引詩, 筆談·唱和.

I. 緒論 - 外交 談話의 주요 매체로서의 『詩經』

詩를 통해 의사를 교류하는 형태는, 시 형식이 발생하면서부터 이루어져 왔고, 그 교류 대상은 個人間, 민중과 귀족계층간, 君臣間에서부터, 國家間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가운데 春秋戰國時期 諸侯國간 외교관계에서의 賦詩· 引詩 활동은, 『詩經』을 통한 外交辭令 및 의사전달 형태가 고도로 정착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春秋戰國時期 이후에는 『詩經』을 통해 행해졌던 賦詩· 引詩 활동의 구체적 형식과 내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대신, 朝鮮-淸· 朝鮮-日本간의 외교활동이나 베트남-中國간의 외교활동 등에서 볼 수 있듯, 詩 형식을 매개로 한 國家間的 외교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문화 형식을 활용한 외교활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詩經』이 비록 후대의 唱和를 통한 외교활동에서 先秦時期 만큼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詩經』의 언어는 꾸준히 諷答· 唱和 속에 援用되어 그 내용을 충실히 하고 상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선-일본 간의 외교관계에서 通信使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닌다. 총 12차례에 걸친 조선의 통신사행은, 정치·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상·문화·문학에 이르는 전반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학술계가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通信使의 각 분야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활발한 연구 성황에 비해 볼 때, 통신사의 筆談·唱和에 반영된 『詩經』의 요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에 있다.¹⁾ 게다가 통신사행 필담·창화에서의 『詩經』 援用이, 先秦時期的 賦詩·引詩를 이상적 모델로 삼는 데서 연유하며, 바로 그 이유에서 『詩經』의 選取過程과 外交活動에서의 기능을 고찰하고 그 의의를 당시 唱和活動에 되살리고자 하는 담론을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나 관심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通信使의 창화필담 가운데, 통신사와 일본 학자간의 교류에서 보이는 『詩經』 언어 및 관련 담론을 조사해 봄으로써, 조선-일본간 외교활동 중에 활용된 『詩經』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안에 구현된 『詩經』의 효과 및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1) 조선과 중국과의 외교사절이었던 燕行使 활동과 중국 고대 외교활동에서 『詩經』을 활용한 예를 연관시킨 논문으로 김상홍, 『東아시아 歷代文化交流 人物集成의 意義』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 문예원, 2010, pp.16-18)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古代 國家間의 文化交流는 主로 使臣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외교적 현안을 調律·解決하고 아울러 양국간의 문화를 수용하고 傳播하는” 使臣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燕行使의 시 작품 속에 인용된 『詩經』 「皇皇者華」·「北山」편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외, 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pp.113-114)에서 일본문사 瀧川昌樂의 經學 논의 부분 중, 『詩經』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내용(魯詩와 詩樂譜音說)을 소개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Ⅱ. 引詩 - 『詩經』言語 및 體式에 대한 援用

『詩經』 305篇은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오면서, 문학·문화·역사·고고학 등 광범위한 방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한 까닭에 시대를 거듭하며 漢語의 발음·어휘·어법 상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詩經』의 언어 및 언어가 빚어낸 형상화된 이미지는 후대의 문학 및 언어생활 속에 융화·전승되었다. 본 章에서는 통신사행의 필담·창화에 반영된 『詩經』의 언어 및 그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필담창화의 성격과 『詩經』 언어·이미지·體式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詩經』 篇名 이미지의 引用

통신사행 창화·필담에서 『詩經』 편명 및 특정 편명 관련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에 일정한 경향성을 지녔는데, 인용빈도수가 비교적 높은 篇名은 「鹿鳴」·「四牡」·「皇皇者華」 등이 있다.

동도(東都)에 이르러 며칠 만에 과연 그 사람[岡鳴]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기이한 선비였는데, 그와 함께 「鹿鳴」을 노래하고 읊조리는 자리에서 그가 칭찬하는 사람 가운데 또한 玄洲가 있었으니, 내가 이전에 제대로 보았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²⁾

王事는 그치지 않으니, 열심히 일한 賢者를 위해 「四牡」편을 노래하네.³⁾
(일본의 선비들은 비범하여) 좌중을 놀라게 하는 言辭는 孟·荀과 같으니,

2) 瀨尾維賢, 『桑韓唱和填篋集』 卷一, 「寄贈朝玄洲(并序)」(申維翰作): “至東都, 數日果得其人. 其人自奇士, 與之歌且吟於「鹿鳴」之席, 所稱祝意中人, 亦在玄洲君.”; 『桑韓唱和填篋集』 卷一, 「奉和荻隱士見寄」(申維翰作): “「四牡」·「皇華」詠在今, 海槎行盡復溪林.”

3) 瀨尾維賢, 『桑韓唱和填篋集·補遺』, 「奉呈成嘯軒書記」(前田葉菴作): “王事既無監, 賢勞「四牡」歌.”

수레를 멈추고 「四牡」를 노래하네.⁴⁾

東西의 海國이 서로 우호를 닦음에, 응당 周詩 「四牡」를 이어야지. <…>
堂堂한 賓館에 威儀있는 客이여, 「小雅 · 皇華」의 노래 소리 높여 부르네.⁵⁾

『詩經』의 편명은 본 편명이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도, 詩篇 안의 어휘를 사용하여 시편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萃鹿呦呦” · “萍鹿” 등으로 「鹿鳴」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⁶⁾

창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詩經』 篇名인 「鹿鳴」 · 「四牡」 · 「皇皇者華」는 『詩經 · 小雅』의 첫 세 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춘추시대 饗宴의 典禮에 사용되던 樂歌의 명칭이기도 하다. 春秋時代 饗宴의 儀式에는 반드시 歌詩가 동반되었다. 『儀禮 · 燕禮』편에 饗宴이 시작될 때 瑟을 연주하며 「鹿鳴」 · 「四牡」 · 「皇皇者華」 세 노래로 시작한다는 기록⁷⁾이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세 편 of 시는 성격과 기능이 같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先秦時期에 燕享 儀式에서 세 작품이 연이어 演奏 혹은 賦詩되는 경우에는, 세 편 of (樂)詩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左傳 · 襄公四年』에는, 穆叔이 晉에 사신으로 가, 知武子의 禮訪에 대한 답례를 할 때, 晉侯가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肆夏」 이하 세 편을 연주하고, 「文王」 이하 세 편을 연주해도 절을 올리지 않다가, 「鹿鳴」 이하 세

4) 村上秀範 等篇, 『和韓唱和錄』 卷下, 「次龍門瑤韻」(朴矩軒作): “<…>驚座卮言似孟荀, 車蓋一傾歌「四牡」.”

5) 林信言, 『延享韓使唱和』, 『謹贈朝鮮國從事官通訓大夫蘭谷曹公詩三章』: “辭海國東西修好時, 應論「四牡」似周詩. <…>堂堂賓館威儀客, 高唱皇華小雅辭.”

6) 瀨尾維賢, 『桑韓唱和填麋集』 卷八, 「奉誦圭齋見贈」(申維翰作): “百年脣齒修盟日, 萃鹿呦呦盡意歡.”; 『延享韓使唱和』, 「日本國國子祭酒林公案下」(洪啓禧作): “萍鹿賓筵笙瑟合, 異時魂夢寄雲逢.”

7) 『儀禮 · 燕禮』: “設席于堂廉<…>工入, 升自西階, 北面坐. 相者東面坐, 遂授瑟, 乃降. 工歌「鹿鳴」 · 「四牡」 · 「皇皇者華」. 卒歌, 主人獻工.”

편을 연주하자 세 번 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이 使臣으로서 들을 자격이 되는 연주만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즉 「鹿鳴」 이하의 세 편은 각기 임금이 群臣嘉賓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는 의미(「鹿鳴」), 멀리서 온 使臣을 위로하는 의미(「四牡」), 임금이 使臣을 파견하는 의미(「皇皇者華」)를 담고 있었으며⁸⁾, 선진시기의 외교적 배경에서 賦詩될 경우에는, 이 같은 특정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통신사행 筆談·唱和에서 「鹿鳴」·「四牡」·「皇皇者華」 세 편명이 자주 사용된 점은, 통신사행의 외교활동이 당시 사행 참여자들의 인식 속에서, 춘추시대 使臣의 外交活動과 같은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춘추시대의 「鹿鳴」·「四牡」·「皇皇者華」에 대한 賦詩에서는 燕享의 주체와 객체에 임금과 使臣이란 계급 차이가 존재했다면, 통신사 筆談·唱和에서의 이 세 편에 대한 引詩는 본래 존재했던 燕享 主客體의 계급의미를 없애고, 燕享을 중심의미로 사용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 饗宴의 儀式 및 정황을 표현하기 위해, 『詩經』 중 宴禮에 쓰였던 詩篇인 「小雅·賓之初筵」·「魚藻」¹⁰⁾ 등의 편명도 인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통신사행 筆談·唱和에서 인용된 『詩經』 편명의 선택이 外交

8) 『左傳·襄公四年』: “穆叔如晉, 報知武子之聘也. 晉侯享之, 金奏「肆夏」之三, 不拜. 工歌「文王」之三, 又不拜. 歌「鹿鳴」之三, 三拜. 韓獻子使行人子員問之, 曰: “子以君命辱於敝邑, 先君之禮, 藉之以樂, 以辱吾子. 吾子舍其大, 而重拜其細. 敢問何禮也?” 對曰: “三夏, 天子所以享元侯也, 使臣弗敢與聞. 文王, 兩君相見之樂也, 使臣不敢及. 「鹿鳴」, 君所以嘉寡君也, 敢不拜嘉? 「四牡」, 君所以勞使臣也, 敢不重拜? 「皇皇者華」, 君教使臣, 曰: ‘必諮於周.’ 臣聞之, ‘訪問於善爲咨, 咨親爲詢, 咨禮爲度, 咨事爲諷, 咨難爲謀.’ 臣獲五善, 敢不重拜?”

9) 楊尙時, 『左傳賦詩引詩考』, 臺灣中華書局, 民國61年, pp.2-5.

10) 林信充, 『延享韓使唱和』, 『日本國國子祭酒林公案下』(洪啓禧作): “「萍鹿」·「賓筵」笙瑟合, 異時魂夢寄雲逢. <…> 「鹿鳴」宴樂聘儀盛, 「魚藻」詠吟詞翰加, 相見百年隣好禮, 更教玉帛問邦家.”

使節로서의 성격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宴禮 儀式的 성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詩經』 語彙 이미지의 援用

1) 禮物·詩文의 贈答: 木瓜와 瓊琚의 상징 이미지

『衛風·木瓜』 제1장에 “投我以木瓜，報之以瓊琚，匪報也，永以爲好也”(내게 모과를 건네주기에, 아름다운 패옥으로 답례하였네, 답례하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좋게 지내자는 뜻에서라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받은 물건은 木瓜이고, 그에 보답한 예물은 瓊琚이다. 받은 물건은 보잘 것 없지만, 그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고, 호의를 보이므로 귀중한 瓊琚를 선물한다는 내용이다. 木瓜·瓊琚의 이미지는 후에 예물을 주고받는 상황을 상징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되었다. 단, 이후에 쓰이게 될 때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하고자, 주는 대상물을 木瓜로, 받는 대상물을 瓊琚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통신사행에서 또한 木瓜와 瓊琚는 唱和와 禮物 등을 주고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자주 쓰였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叨投**木瓜**，謬賜**瓊琚**，幸固出望外也。(朴敬行: 외람되어 木瓜를 드렸는데 황송하게도 瓊琚를 선물 받았으니, 다행함이 실로 뜻밖이라 하겠습니다.)¹¹⁾

前後信使，輒與座下四世相周旋，可謂奇幸。**所投瓊章**，姑竣使事竣完，當謀**瓜報**。(副使 南泰耆: 전후 통신사들이 귀하의 집안과 四代에 걸쳐 서로 만난 일은 기이하고 운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내려주신 瓊琚와 같은 詩篇에 대해서는, 使臣의 일을 마친 후에 木瓜로 보답하겠습니다)¹²⁾

清絶和篇**瓊玖報**，深情應是舊因緣。(南龍翼: 清絶한 和答詩는 瓊琚의 報

11) 村上秀範, 『和韓唱和錄』, 『奉次希齊惠韻』.

12) 林信充, 『延享韓使唱和』, 『與三使筆語』.

답이니, 그 깊은 情 응당 오랜 인연이리)¹³⁾

以使事忽忽, 而不暇**瑤報**, 在途辱賜一絕, 示辭丁寧, 感佩有餘.(林信充: 使臣일이 多忙하여 (공의)瓊瑠에 보답할 겨를이 없다가, 도중에 또 한 수를 내려 받았는데 담긴 말이 은근하여 감복함이 절로 넘쳐납니다.)¹⁴⁾

우리는 위의 예문들을 통해 통신사행에서 사용된 木瓜와 瓊瑠의 상징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대방이 예물이나 詩文을 전달할 때는, 으레 겸사로 자신의 선물이 보잘것없음을 표현한다. 이 때에 받는 이는 상대방의 겸양·겸사에 대해, 『邶風·靜女』의 ‘非物之美, 美人之貽’ 구절로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은 1719년 통신사행에 참가했던 靑泉 申維翰과 朝枝玖珂 간의 필담내용에 보이는 用詩의 예이다.

【世美¹⁵⁾】 담배 한 주머니를 공께 드립니다. 즐기시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적막한 객관 생활에 그럭저럭 위안거리로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찮은 물건으로 정성을 올리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질 따름입니다. 【靑泉】 담배는 공급을 받아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즐겨 피우는지라 부족한 것을 늘 걱정하, 공께서 은혜롭게 내려 주시니 바로 옛 시인이 말한 ‘(선물이 아름다운 것은) **물건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가 선물해서라네**’ 라고 한 경우입니다.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¹⁶⁾

예물 혹은 시문의 증답은 木瓜나 瓊瑠의 이미지 뿐 아니라, 縞紵로 나타

13) 南龍翼, 『扶桑錄·扶桑日錄』, 6月22日乙亥條, 「附次韻」.

14) 林信充, 『延享韓使唱和』, 「奉復從事官曹公閣下」(并序).

15) 朝枝玖珂(1697-1745). 이름은 世美, 字는 德濟, 別號는 毅齋. 善次郎·源次(二)郎으로도 불린다.

16) 瀨尾維賢, 『桑韓唱和瑣集』 卷六, 「彥根」: “絲烟一袋, 奉諸左右, 固雖不足賞, 而又稍可慰岑寂. 微物呈誠, 徒增顏赧耳. 【世美】 此物雖因供饋而得食, 然平生嗜飲, 常患不足, 得足下惠賜, 正詩人所謂‘非物之美, 美人之貽’, 感拜無已. 【靑泉】 ”

내기도 하였다. 가령 雨森芳洲는 1711년 통신사행 창화집의 제목을 『縞紵風雅集』이라 하였는데, 이 때의 ‘縞紵’는, 춘추시대 吳나라 公子 季札과 鄭나라 大夫 公孫僑(子產)가 聘禮를 행하면서, 季札이 吳에서 가져온 縞를 자산에게 주고, 자산이 鄭國의 紵를 답례로 선물하였다는 『左傳』의 기록¹⁷⁾에서, 贈答物을 가리켜왔다. 이는 『詩經』의 편찬의도 및 창화의 성격을 가리키는 ‘風雅’와 ‘縞紵’를 함께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 그 외, ‘縞紵’는 『鷄林唱和續集』(七家唱和集)의 한 편인 『賓館縞紵集』(祗園南海, 淺草洞本願寺에서의 唱和) · 『縞紵集』(桃生盛, 1719년 通信使와의 筆談唱和集) · 『獻紵藁』(澁井太室, 1748년 通信使와의 筆談唱和集)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조선 사신이 내심 일본의 文辭 수준을 비하하든, 후기의 일본 학자들이 조선 사신의 편식적인 학문성향을 비판하든 간에, 唱和 · 筆談의 표면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겸양을 표방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衛風 · 木瓜』편의 木瓜와 瓊琚의 소유자를 의도적으로 변환시켜, 자신의 것에 대한 보잘것없음[木瓜]과 상대방의 것에 대한 소중함[瓊琚]을 대비시키는데 사용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한편, 통신사행의 필담 · 창화에서, 木瓜와 瓊琚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함에 비해, 준 것[桃]과 받은 것[李]의 貴賤이 대등관계를 이루고 있는 『大雅 · 抑』 편 “投我以桃 報之以李”¹⁸⁾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잘 인용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또한 『詩經』 언어 이미지의 사용이, 유교문화의 배경과 통신사행의 성격에 맞게 취사선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左傳 · 襄公二十九年』.

18) 『衛風 · 木瓜』편의 “投我以桃 報之以瓊琚”와 『大雅 · 抑』편의 “投我以桃 報之以李”의 비교에 대해서는, 錢鍾書, 『管錘編 · 毛詩正義』(三聯書店, 2008, p.171.) 참조.

2) 여정의 마감, 떠남과 그리움의 이미지

오랜 항로와 육로의 길을 지나와 서로 만남을 가졌던 때의 긴장, 즐거움, 바쁜 唱和·筆談의 여정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는, 일본 문인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내용으로 하는 필담창화가 이루어진다. 이 때에 이별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詩經』 언어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을 적잖이 확인할 수 있다.

今貴船在于咫尺, 不得遂御李, 詩人「蒹葭」之思, 何能已焉(“지금 공의 배가 지척에 있는데도 뵈 수가 없으니, 옛 시인이 노래한 「蒹葭」의 그리움을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¹⁹⁾

“又曰: ‘皎皎白駒, 在彼空谷, <…> 生芻一束, 其人如玉’, 賢者不留于此, 於戲! 繫于世情也哉!”²⁰⁾(『詩經』에) 또 말하기를 ‘하얀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네. <…> 푸른 꼴 한 묶음 두고, 옥 같은 그 사람 기다리리’라 하였는데, 賢者께서 여기에 머물지 않으시니, 아, 世情에 매였어라!

西夜徘徊人不見, 滄波解纜我心忡²¹⁾(이국땅 밤에 서성이며 기다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파도 결에 배 떠나니 마음이 슬퍼져라)

曉色郵亭樹, 悲歌摻子衣²²⁾(역참 나무에 새벽빛 드리울 때, 슬픈 노래 부르며 그대 옷을 부여잡네.)

「秦風·蒹葭」편은 그리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을 노래한 詩이고, 「小雅·白駒」편은 임금이 떠나려는 어진 이를 간절히 만류하는 상황을 노래한 詩이다. 이 중 「小雅·白駒」편의 白駒 이미지는, 白駒를 탄 사람이 賢者라는 詩의 배경으로 인해, 작별과 관련된 筆談·唱和에 자주

19) 瀨尾維賢, 『桑韓唱和填篋集』卷八, 「奉呈朝鮮國學士申公詞案下」(門岡東郊作).

20) 奧田元繼, 『兩好餘話』, 「贈龍淵成書記序」.

21) 村上秀範, 『延享和韓唱和錄』, 「次賀大雅送別韻」(朴矩軒作).

22) 瀨尾維賢, 『桑韓唱和填篋集』卷三, 「曉起將行, 奉和春竹」(成大中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召南·草蟲』편 ‘未見君子 憂心忡忡’ 구절을 援用한 ‘西夜徘徊人不見, 滄波解纜我心忡’句나, 『鄭風·遵大路』편 “遵大路兮, 摻執子之袂兮” 구절을 인용한 ‘悲歌摻子衣’句는, 각각의 七言·五言 형식의 맞게 『詩經』의 언어를 바꾸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詩經』 중, 외교활동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 내지 편명들은, 唱和·筆談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하며, 오직 使行 중 개인의 술회를 기록할 때 간혹 등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周宣王이 尹吉甫에게 명하여 오랑캐 玃狁을 정벌하는 것을 노래한 『小雅·六月』과 같은 편명은 從事官 金相翊이 고국에 보고를 올릴 때 쓴 시편²³⁾의 경우에서나 등장하였다. 또 비속하고 음란한 노래[음악]을 가리키는 ‘鄭衛’로 일본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南龍翼이 使行 중 읊은 感懷詩²⁴⁾ 정도에 등장하며, 실제 필담창화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이를 통해 볼 때에도, 唱和·筆談에서의 『詩經』의 언어 이미지에 대한 選取가 나름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학전반이 수많은 형태로 『詩經』의 언어를 흡수·援用하여 왔듯, 통신사행 필담·창화 또한 使行의 성격을 살려 『詩經』 언어를 원용함으로써 나름의 계승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통신사행 필담·창화에는 본고에서 제시한 언어·이미지 외에도, ‘翩翩’·‘泱泱’ 등의 疊語나 ‘之子’·‘威儀’ 등 『詩經』에서 유래한 어휘들이 등장하지만, 이는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또 기존의 시문학 작품 속에서의 『시경』 인용 경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통신사행 필담·창화 고유의 특징적 인용 형태로 분류·분석하기 어려운 점

23) 趙曦, 『海槎日記·酬唱錄』, 『江戶傳命』(從事官 金相翊作), 『海行摠載』, 권VII 수록본: “徘徊強欲初筵賦, 六月詩章致意看”(배회하며 굳이 『初筵』의 시를 지을진대, 『六月』 편을 정신 차려 보아야지).

24) 南龍翼, 『扶桑錄·回槎錄』, 『12月29日己卯·壯遊二百韻』(『海行摠載』, 권V 수록본): “淫奢遵鄭衛, 妖冶笑鹽媮”(음란함과 사치함은 鄭·衛를 본받았고, 요사스런 꾸밈은 無鹽을 비웃네).

이 있어, 본고에서는 이 부분의 인용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진행시키지 않았다.

3. 『詩經』體式의 援用

주지하듯, 『詩經』詩篇의 형식은 四言을 위주로 하고 唱和詩는 주로 五言 또는 七言으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唱和詩에서 『詩經』體式을 援用한다는 것은 흔히 보이는 양상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泱泱餘響』에 수록된 成大中의 詩經體 和答詩는 형식적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예라 할 수 있다. 성대중이 어떠한 방식으로 『詩經』體式의을 援用하여 唱和하는지, 그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引詩·論詩의 또 다른 측면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泱泱餘響』은 1764년 11차 통신사행 때 21세의 龜井南冥이 南玉·成大中·元重舉 등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筆談唱和集이다. 龜井南冥이 먼저 楚辭體로 시를 짓고, 그에 응해 成大中이 詩經體, 즉 四言體로 和答하였다. 『和奉道哉』를 제목으로 하는 이 和答詩는 1章8句, 총 5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瓊琚之粲,	瓊琚의 맑음이어,
子實華子,	그대가 실로 아름다워서라네
曷不夙夜,	어찌 이른 밤에 하지 않을까만은
畏此簡書,	이 簡書를 두려워서라네
山則有木,	산에는 나무가 있듯
水則有魚,	물에는 물고기가 있듯
壹者之遇,	한 번 만나니
中心則紓. ²⁵⁾	마음이 놓이는구나

25) 龜井南冥, 『龜井南冥昭陽全集』 제1권, 『泱泱餘響·和奉道哉』, p.525. 이 詩의 불

1·2구는 龜井南冥에게서 받은 詩[瓊琚]와 龜井南冥에 대한 예찬의 뜻 [子實華子]을 나타냈는데, 이는 앞 절에서도 언급했던 『衛風·木瓜』 편을 援用한 부분에 해당한다. 3·4구는 여인이 결혼을 거절하는 내용을 읊은 『召南·行露』편의 ‘曷不夙夜，謂行多露’ 구절을 援用하면서, ‘謂行多露’에서 假借字 ‘謂’字를 本字인 ‘畏’字로 직접 변환시키고 있다. 5·6구 ‘山則有木，水則有魚’는 『詩經』에 자주 등장하는 興句 ‘山有X，隰有X’의 형식을 援用한 것으로 보인다. 이 起興 형식은 『詩經』에 모두 9차례 등장하는데, ‘山有榛，隰有苓’(『簡兮』)·‘山有樞，隰有楡’(『山有樞』) 등의 三字 형식과 ‘山有扶蘇，隰有荷蕕’(『山有扶蘇』)·‘山有苞櫟，隰有六駮’(『晨風』) 등의 四字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起興 형식은 주로 남녀의 애정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이 구조 속에 나무와 풀이 함께 등장할 경우, 나무는 남성을, 풀은 여성을 상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된다²⁶⁾. 그 외에 ‘山有X，隰有X’가 변형·확장된 구조도 보이는데, 이 구조에 ‘則’자를 첨가한 형태인 ‘淇則有岸，隰則有泮’(『氓』)이 그에 해당한다. 등장물이 나무와 풀이 아닌 경우 상징 이미지는 애정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게 된다. 본 『和奉道哉』에 등장하는 ‘山則有木，水則有魚’는 『詩經』의 起興구조를 援用하였지만, 그 의미는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과 같이 마음에 꼭 맞는 만남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겠다. 7·8句에서는 서로의 만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 구절은 5·6구의 起興을 잇는 續句, 즉 起興句가 나타내고자 한 의미를 서술한 부분에 해당한다. 『詩經』에서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안도감·환희를 표현하는 구절(‘亦既覯止 我心則降’- 『氓』; ‘在彼中沚，既

은 并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夫不言而喻者，心之合也；無求而親者，道之與也。苟以是行，雖千載之遠，可以神遇，况耳目之近乎？辭者，所以述志也。君既騷以惠我，請以大雅之餘荅之。”

26) 程俊英·蔣見元, 『詩經注析』, 中華書局, 1991, p.105.

見君子,我心則喜'-'菁菁者莪')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四言體 『詩經』가 가질 수 있는 모방의 단조로움을 상쇄시켰다 하겠다.

이상에서, 당시 통신사행 필담·창화에 사용된 『詩經』이, 篇名이나 언어 이미지의 인용에 국한되지 않고, 『詩經』의 四言體式을 활용한 면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그 四言體式이 단순한 『詩經』 구절의 답습과 재배열의 수준을 뛰어넘어, 작자의 전달 의도와 창작 개성을 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Ⅲ. 論詩 - 先秦 『詩經』 고찰을 통한 唱和詩의 創作方向 모색

통신사행 筆談 가운데는 『詩經』의 引詩를 통해 의사를 피력하는 외에도, 『詩經』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 가운데 『詩經』의 經學적 고찰과 관련된 내용²⁷⁾도 있지만, 여기서는 통신사행 唱和의 성격과 『詩經』을 연관지어 논의한 筆談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先秦 賦詩·引詩 고찰을 통한 唱和詩의 機械的 多作現象 반성

통신사행의 唱和는 先秦時代 외교활동 중의 賦詩·引詩와는 그 실제 내용이 다르다. 선진시대의 賦詩·引詩는 『詩經』의 篇名이나 句節를 통해 외교 辭令 및 意思를 전달하는 활동이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통신사들은 일본 文士와 '詩'를 贈答하며 서로간의 의사를 전달할 때, 『詩經』의

27) 가령 『桑韓筆語唱和集』(熊谷了等著) 중 瀧川昌樂의 經學 논의 가운데, 『詩經』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魯詩와 詩樂譜音說) 등이 이에 해당한다.

篇名이나 일부 詩句가 아닌, 文辭를 담당한 使臣들의 創作詩를 통하였다. 한편, 통신사와 일본 문사간의 시문 증답은, 단순한 의사 전달의 차원을 넘어, 일본 문사의 조선 문인 작품에 대한 所藏 慾求까지 만족시켜주어야 했다. 그러한 까닭에, 文辭를 담당하는 사신들은 大阪·江戶와 같은 대도시에 머무를 경우, 엄청난 唱酬詩·文章의 요구에 심신이 지칠 정도였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南玉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찾아온 이들이 벌떼·개미떼 같았으며, 그들이 詩적인 종이를 앞 다투어 들이대는 모습은 마치 科場에서 試券을 제출할 때의 모습과 같았으니, 그 옆에서 필담을 하면 눈과 마음이 어지러워 누가 무슨 시를 주었는지 기억할 수 없는데다, 酬唱할 수도 없었기에, 온 순서대로 차례를 정하였다.²⁸⁾

결국 이렇듯 무리한 唱和 방식은 기계적인 唱和作品을 양산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唱和 과정에서의 부정적 현상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되었는데, 일부 文士들은 先秦時期 『詩經』의 引詩·賦詩의 本趣旨를 밝힘으로써, 당시 통신사와 일본 文士간의 唱和에서 발생한 부정적 요소를 개선해보고자 하였다. 아래는 太宰純이 申維翰에게 보내는 序文에서 통신사들이 多作을 강요당하는 상황의 안타까움을 서술한 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일부분이다.

兩漢 이래, 詩人の 창작은 비록 三代의 古風을 회복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에 가까이 갈 수는 있으니, 詩人の 要諦가 雅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 오늘날 天地의 造化로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詩만이 그러합니다. 책에서도 “詩言志”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春秋 시기에는

28) 南玉, 『日觀記』 卷七, 1月23日 己亥條, “進者如蜂蟻之集, 迭投詩紙如科場投券之爲, 旁作筆語, 心目焚亂. 又不記何人呈何詩, 不可隨以酬之, 迺使其人各執所進, 以來之先後爲序.”

朝會나 燕享에서 賦詩할 때 모두 雅頌의 말을 읊었던 것입니다. 지금에는 비록 그러지 않는다 하지만, 어찌 多作을 숭상하겠으며, 또 어찌 빨리 應酬하는 것을 일삼겠습니까? 이는 단지 재주를 다투는 것에 비할 것이며, 실로 樂의 조화로움을 해치는 것이니 禮가 아닙니다.<…>저는 季札이 國風을 살피고 鄭子가 官制를 논할 때 詩로 서로를 괴롭히는 정도가 이토록 심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아! 禮樂이 옛 모습을 잃어버려, 비록 朝聘의 일 이건만, 「鹿鳴」이 더 이상 연주되지 않고, 「四牡」가 더 이상 응해지지 않으니, 어떻게 嘉賓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29)

太宰純은 先秦時期的 賦詩·引詩에서 『詩經』(雅頌)을 읊어, 天地의 조화로움을 그대로 담아내던 상황을 동경하였으며, 多作이나 速作이 唱和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여겼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강요된 速作과 多作으로 둘러싸인 통신사와 일본 文士와의 唱和에는 先秦時期的 「鹿鳴」과 「四牡」의 본질이 더 이상 구현되기 어려웠다. 이는 당시의 唱和하는 방식과 내용이 원래의 창화의 本意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는데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唱和詩의 외교관계에서의 효용가치는 인정하되,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과 성격을 되찾게 하는 이상적 모델을, 선진시대 『詩經』의 引詩 방식에서 찾았자 하였음은, 통신사행의 筆談·唱和와 『詩經』의 유기적 관련성을 더욱 구체화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9) 太宰純, 『(信陽山人)韓館倡和稿』, 『奉送朝鮮製述青泉申公序』:“惟自兩漢以降, 詩人之作, 雖非復三代之舊乎, 猶可以接武, 風人要歸雅頌也, 則今而可以致天地之和者, 唯詩爲然. 且書不曰乎? ‘詩言志’. 故春秋時, 朝會燕享賦詩者, 率誦雅頌之言而已. 今縱不然, 豈以多爲尙哉, 則亦何取於捷給乎? 此特鬪枝[논자주:技자의 오자인 듯]者比, 賓[논자주:實자의 오자인 듯]傷樂之和, 非禮之意也<…>吾聞季札辯國風 鄭子語官制, 未聞以詩相擾若是之煩<…>嗚呼, 禮樂之非古也, 雖有朝聘之事, 而「鹿鳴」不奏, 「四牡」無答, 又何以燕樂嘉賓之心乎?”

2. 『詩經』의 기능 고찰을 통한 唱和詩의 역할 모색

통신사행 筆談·唱和 중, 『詩經』의 주요 기능을 바라보는 세부적인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成大中은 “三百葩詩曾未誦, 若爲敷德遠夷柔”(『詩經』 삼백 편을 진작 외질 못했으니, 어찌하면 덕화 퍼서 먼 오랑캐 회유할까)³⁰라 하여, 『詩經』의 본질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상대국을 덕으로 감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반해, 趙曦은 “葩經三百還餘事, 須講麟郊一部書”(삼백 편의 『시경』 일랑 도리어 나머지 일, 『춘추』의 대의를 보다 먼저 강론하세)³¹라 하여 『詩經』의 역할을 『春秋』의 그것과 구분시켜 보았다. 이는 『詩經』의 주요 역할 범위를, 美辭麗句를 창화하는 수준에서 국가 간 友好 관계 유지 정도에 한정시킨 경우에 속한다 하겠다. 그러나 통신사행의 정치외교 활동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使臣의 言辭 專對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言辭 기술의 습득·운용 과정에서 『詩經』의 본질과 先秦時代 활용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염두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통신사와 일본 문사들이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兩國이 교류하는 과정 중 情意가 막히기 쉽게 마련인데, 만약 일개 믿이 없다면 어찌 彼此간의 情을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외국에 使臣간자는 전담하여 교섭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國書만 가지고 왕래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孔子가 어찌,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詩經』 3백 편을 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³²

30) 趙曦, 『海槎日記·酬唱錄』, 『示意』(成大中).

31) 趙曦, 『海槎日記·酬唱錄』, 『歲癸未八月哉生明, 余以通信正使拜辭闕下出國門, 敬次先考赴燕時西郊韻(原韻不贖)』.

32) 金誠一, 『海槎錄』四, 『書簡·重答玄蘇書』: “<…>兩國交際之間, 情意易阻, 若無一介之信, 則豈能通彼此之情乎? 是故使於四方者, 以專對爲難, 如以奉國信往來爲能而止, 則孔聖何取於誦詩三百乎?”

또한 聖人이 『詩經』의 刪定한 기준을 통해, 『詩經』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이 당대의 詩創作에 반영되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옛날 공자께서 殷周의 詩를 가려뽑아 三百餘篇을 刪定하였습니다. 비록 秦의 焚書의 禍를 겪고도 끝내 滅失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諷誦되어 竹帛에 만 의존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詩經』의 언어는 平穩하여, 일을 가리켜 뜻을 나타내고 譬喩로 유추해 나아가, 한 마디도 난삽하거나 억지로 꾸며내거나 기괴하고 화려하게 하여 사람의 耳目을 현혹시키는 것이 없기에, 굳이 諷誦하지 않아도 道의 顯晦와 世의 隆汚과 善惡이 명료하게 드러나 쉽게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모두 溫柔敦厚의 詩정신으로, 聖人이 天下後世를 생각해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 여기에서, 옛 聖人이 采詩한 用意가 모두 自然의 風尙과 時運의 升降에서 비롯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後世에 논하는 作詩의 속도나 工拙 따위는, 詩를 얘기할 때 거론할만한 문제가 아닙니다.³³⁾

奧田元繼가 말한 ‘采詩’는 周代에 각 지역의 詩를 모으는 작업의 采詩라기보다는, 孔子가 후대에 『詩經』을 편집·정리하는 과정에서의 采詩를 가리킨다. 采詩의 주체를 周代의 采詩官이나 기타 無名의 관리가 아닌 聖人 孔子으로 설정할 경우, 采詩의 기준을 정당화하고 모범화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唱和詩를 직접 거론하며 『詩經』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전후의 맥락으로 볼 때, 奧田氏가 의식적으로 당시 唱和詩의 내용적 특징을 염두하고 언급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평이하고 구체적이며

33) 奧田元繼, 『兩好餘話』, 『贈龍淵成書記序』: “古昔夫子純取殷周之詩, 刪定三百餘篇. 雖歷秦焚而竟不滅者, 以其諷誦不獨在竹帛故也. 其爲言, 大抵平穩, 指事立義, 譬喩連類, 未嘗見一言有難澁矯飾奇詭華縟眩惑于人耳目者, 而不待彼諷誦朗詠, 而道之顯晦·世之隆汚·善否淑慝, 瞭然易感慨者, 咸溫柔敦厚, 聖人爲天下後世慮之所由成也.<…>於是乎知古之聖人采詩用意, 皆出於自然風尙, 時運升降, 而後世論遲速工拙之未足可與言詩而已.”

형상화된 『詩經』의 언어와 難澁하고 가식적이며 현혹적인 詩 언어가 대비를 이루어 서술되고 있는데, 『詩經』의 언어와 당시 詩의 언어를 대비시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奧田元繼은 『詩經』 채록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데 있다고 보았기에, 문학 기교를 따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상에서 통신사행의 필담 · 창화에서 『詩經』의 성격을 규정하는 몇몇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이 『詩經』의 성격을 정의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唱和詩가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고, 唱和詩 창작의 목적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IV. 結論

본고에서는 通信使 筆談 · 唱和 속에 보이는 『詩經』 언어 · 이미지 · 體式 형태 및 관련 담론을 조사해 봄으로써, 조선—일본 간 외교활동 중에 활용된 『詩經』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안에 구현된 『詩經』의 의의를 조명해 보았다. 이를 통해, 先秦時期 燕享 儀式에 쓰였던 특정 『詩經』 편명이나, 禮物 · 詩文의 贈答을 나타내는 『詩經』 어휘들의 출현 빈도가 높으며, 詩經體式을 사용해 和答한 詩作品도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先秦時期의 賦詩 · 引詩 구조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당시 唱和 형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담론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通信使行 筆談 · 唱和에서의 引詩 · 論詩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첫째, 通信使行에서 唱和 · 필담한 대상인물의 학파 · 성향에 따라 『詩經』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당시 동아시아 『詩經』學史의

전반적인 구도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通信使와 유사한 외교목적을 지닌 燕行使의 필담·창화를 함께 비교·분석해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당시 동아시아 『詩經』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뿐 아니라, 通信使와 燕行使의 성격과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³⁴⁾

34) 가령, 17세기 燕行使臣이었던 閔鼎重의 『王秀才問答』(『老峯先生文集』권10, 『燕行日記』의 부록) 중에, “詩云: ‘商之孫子, 其麗不億’, 今天下獨無一介朱氏子孫耶, 更命易姓者萬天下, 尙不止億萬, 其如無能爲何”라는 언급에서, 『詩經·大雅·文王』편을 인용하여 중국의 反淸復明 움직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淸實錄』에 실린 王公濯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최근 朱子의 無恥의 무리가 있어서 姓名을 改易하고 몸을 숨겨 도망하고 있다 합니다.<…>”(康熙4年12月己未條) 여기에서 燕行使臣이 引詩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고자 했던 편린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南龍翼, 『扶桑錄』, 『海行摠載』 V, 민족문화추진회, 1974.
趙曦, 『海槎日記』, 『海行摠載』 V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龜井南冥, 『龜井南冥昭陽全集』 제1권, 『泱泱餘響』, (日)葦書房, 1979.
瀨尾維賢, 『桑韓唱和填篋集』, 日本 奎文館, 享保5年(172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太宰純, 『(信陽山人)韓館倡和稿』, 동경도립도서관 소장본.
村上秀範 等篇, 『和韓唱和錄』, 延享戊辰(17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奧田元繼, 『兩好餘話』, 동경도립도서관 소장본.
김상홍, 『東아시아 歷代文化交流 人物集成의 意義』,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 문예원, 2010년, pp.16-18.
이혜순, 『조선 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pp.113-114.
楊向時, 『左傳賦詩引詩考』, 臺灣中華書局, 民國61年, pp.2-5.
錢鍾書, 『管錐編·毛詩正義』, 三聯書店, 2008, p.171.
程俊英·蔣見元, 『詩經注析』, 中華書局, 1991, p.105.

Abstract

The Study on fushi(賦詩), yinshi(引詩) in Joseon Tongsinsa's writings

Kim, Su-kyung

This essay focuses on describing the dialogues and languages of the *Odes* quoted in Joseon Envoys(Tongsinsa)'s writings and illuminating the value of the *Odes* in these diplomatic affairs between Joseon and Japan. The research shows that Joseon Envoys and Japanese intellectuals tend to use certain titles of pieces from the *Odes* which had been used as one of performances of the formal welcoming ceremony in the level of an emperor or a feudal lord during the time when the poem and the music had not yet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certain vocabularies from the *Odes* also tend to be quoted frequently, for example, papaya(木瓜), fine jade(瓊瑤), etc. In addition, we find that there is an instance of a Tongsinsa who exploits four-syllable-verse style of the *Odes*, too. Besides the quotations of the *Odes*,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trends and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literary exchange on the basis of the *Odes'* principle and it's function on the Pre-Qin Dynasty Diplomatic sphere. Since the existing studies have not given enough attentions the correlation of the literary exchange of Joseon Tongsinsa with the *Odes*, I believe that this study has a certain value on finding the connec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Tongsinsa and of the *Odes* by giving specific examples.

Key-words : Joseon Envoys(Tongsinsa), the *Odes*, fushi(賦詩), yinshi(引詩), literary exchange.

* a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Dankook University. E-mail: dansill@hanmail.net.

김수경

소속: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소: (우편번호: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퇴계
기념중앙도서관 603호 동양학연구소

전화번호: (자택) 02-428-2880; (핸드폰) 010-3814-5821

전자우편: dansill@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